

#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한뫼'

### 시, 10개 민간·자생단체 대표와 동참 선언식 가져... 회원들이 릴레이로 캠페인 전개

전주지역 민간단체와 동별 자생단체 회원들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릴레이로 전개한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익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총재, 박인숙 국제로타리3670지구총재, 하승빈 국제와이즈맨 한국전북지구총재, 박명진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지회회장, 장성원 전주시새마을회 회장, 김형태 완산자율방범연합회장, 백현규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황혜란 전주시통장연합회장, 정연후 덕진자율방범연합회 재무국장 등 10개 민간·자생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함께해 챌린지' 동참 선언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지난 2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익 국제라이온스협회 전북지구총재, 박인숙 국제로타리3670지구총재, 하승빈 국제와이즈맨 한국전북지구총재, 박명진 한국자유총연맹 전주지회회장, 박오상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지회회장, 장성원 전주시새마을회 회장, 김형태 완산자율방범연합회장, 백현규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황혜란 전주시통장연합회장, 정연후 덕진자율방범연합회 재무국장 등 10개 민간·자생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함께해 챌린지' 동참 선언식을 가졌다.

민간·자생단체 대표들은 선언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키로 뜻을 모았다.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는 10개 민간단체의 경우 290여 개 소속단체에, 회원 수는 9,300여 명에 달한다.

민간단체의 '전주형 착한 선결제 함께해 챌린지'는 단체별 달성목표를 정하고 단체 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동네 상점에서 선결제한 뒤 소속 단체 내에서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통장협의회가 달성목표를 정하고 대표가 선결제한 뒤 중앙동 통장회를 지목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예술 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들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해주시는 민간·자생단체 대표와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공동체 정신과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

### 전주시보건소, 대상연령 만 30세—34세까지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 대상 연령을 만 30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마음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비대면 자가검진 시스템도 구축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청년 무료 건강검진사업은 학업과 취업준비 등 불안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건강 검진 대상연령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가 만 19~34세로 정해짐에 따라 작년까지만 19~30세였던 것이 올해부터 만 34세까지 늘어났다. 건강검진 사항으로는 ▲기초검사 10종(총부방사선(결핵)과 혈액검사 7종, 소변검사 2종) ▲체성분검사(체지방률 등) ▲건강상담(마음 건강상담, 금연·절주·영양상담) 등으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 보건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해 다음 달까지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

(health.jonju.go.kr) 내에 비대면으로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진한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총 204명의 참여자 중 전체의 14.7%인 30명이 마음건강에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마음건강의 경우 힘들면 도움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운 데 따른 조치다.

보건소는 우울이나 불안 증세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전문요원의 전화상담을 통해 조기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청년기는 젊다는 이유로 오히려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료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4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전주시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고자 연 1회 60만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 및 어업농가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의 농어촌지역에 주소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19년 농업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019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2019년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 처분 및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가 ▲영농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자의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석 전에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화폐인 돼지카드로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주 소식지와 현수막,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는 등 지급대상 농가가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특별단속

### 전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나선다

전주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나선다.

시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환경오염사고 예방위반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공업단지 하천, 오염물질 우려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설 연휴기간 전까지는 사전계도 위주로 집중 점검하고 설 연휴기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면서 환경오염사고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오염우심지역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자체 사전점검을 유도한다. 시

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해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유독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불법행위 또는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환경부서(전주시=063-281-2312, 완산구=063-220-5332, 덕진구=063-270-633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에서

## 전주시, 기지제 횡단 산책로 조성

### 총사업비 22억원 투입... 편리한 통학·통근 환경 제공 기대

전주시가 혁신도시 기지제 들레를 순환하는 산책로를 조성한 데 이어 기지제를 가로질러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끝바로 이어주는 횡단 산책로도 완공했다.

시는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장동기지제에 약 637m 구간의 횡단 산책로를 조성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지제 횡단 산책로는 시가 기지제를 순환하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보행 동선을 단축하고 다채로운 보행환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LH, 전북개발공사, 전북도와 함께 참여했다.

횡단 산책로의 경우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통학·통근로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횡단로 전체 노선 637m 중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420m 구간이 3~3.2m로 넓게 만들어졌다. 또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하며 은은한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경관조명시설도 설치했다.

시는 특히 동식물의 서식처인 습지 환경이 최대한 보존되고, 기지제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선을 계획하는 한편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요 부재로 천연목재를 적극 활용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개통한 기지제 순환 산책로의 경우 주민들의 이용 불편 및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해 제방 황토길에 난간과 조명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보행 안전성을 높였다.

또 전망대 3곳을 설치해 포토존과 쉼터로서 휴게공간을 강화했다.

시는 혁신도시 기지제에 순환형 산책로와 횡단 산책로가 연이어 조성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수변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와 함께 편리한 통학·통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명규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기지제 산책로는 도시개발로 삭막한 도시에 자연을 정취를 느끼며 건강한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생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